

# 정명원 코치표 '마음대로 야구' 양현종 공백 메운다

KIA 새 투수코치 정명원

선발 5명·롤리리프 2명·셋업 5명 구상...신예 좌완들 주목  
선발, 브룩스·멥덴·임기영·이민우...김유신·이의리·장민기 '후보군'  
사사구 줄이기 최대 과제...실전 같은 훈련·후회없는 경기 강조

‘실전 같은 훈련, 경기는 후회 없이!’ KIA 타이거즈에 새로 합류한 정명원 코치가 ‘투수 왕조’ 재건을 위해 투수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다.

정 코치는 지난 마무리캠프부터 KIA 1군 투수코치를 맡아 윌리엄스 감독과 2021시즌 마운드 틀을 그려가고 있다.

정 코치는 “눈여겨 보았던 팀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선수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는 기본으로 적응하고 있다”며 “올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마무리는 달라질 수 있다. 박준표, 정해영, 고영창 등과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전상현 등이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할 것이다. 시범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8, 9회는 상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코치는 “선수들이 준비를 잘한 것 같다. 지난 시즌 선수들이 체력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준비해온 것 같다. 아직 부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이번 캠프에서 신인 박건우가 수비훈련 도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지만, 피칭 훈련 과정에서 이탈자는 아직 없다.

정 코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양현종의 빈틈 채우기, 사사구 줄이기다.

정 코치는 “선수들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양현종이 빠졌고 임기영, 이민우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 하나를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또 생각해야 해서 쉽지는 않다. 실력이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브룩스, 멥덴을 상수로 해서 임기영·이민우로 큰 틀을 짠 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다양한 계산을 하고 있다. 정 코치가 선발 후보로 지켜보는 이는 좌완 김유신·이의리·장민기와 우완 김현수·장형식이 다. 정 코치는 특히 좌완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좌완인 김유신, 이의리, 장민기 셋 중에서 양현종의 자리를 메꿔주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김현수와 장형식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임기영과 이민우가 흔들릴 때 옵션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무리는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동할 예정이 다.

정 코치는 “선발 5명에, 롤리리프 2명, 셋업 5명을 생각하고 있다. 중간 셋업에 왼손이 두 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좌완에서는 이준영이 눈에 보인다”며 “선수들이 그 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마무리는 달라질 수 있다. 박준표, 정해영, 고영창 등과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전상현 등이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할 것이다. 시범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8, 9회는 상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예 좌완들에 주목한 정 코치는 ‘스트라이크’를 강조한다. 지난 시즌 사사구로 쉽게 실점을 했던 만큼 준비 단계부터 제구에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정 코치는 “올해 목표는 사사구를 줄이는 것이다. 캐치볼을 강조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던지지 말라는 뜻이다. 제구력의 기본은 던지기부터 시작하니까 캐치볼부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볼펜피칭을 하면서 (스트라이크)박스를 만든 것도 그만큼 집중하고, 제구에 신경쓰라는 의미다. 연습량이 많지 않으니 던질 때 의미를 가지고 던지라는 뜻이다”고 밝혔다.

훈련할 때 ‘시합처럼’을 강조하는 정 코치는 실전에서는 ‘마음대로’를 말한다.

정 코치는 “게임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볼을 믿고 던지라는 뜻이다. 다만 연습할 때만은 진지하게 하고, 시합은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KIA 마운드 육성 기조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정명원 투수코치(오른쪽)가 14일 불펜 피칭이 끝난 뒤 사이드암 김양수를 지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학폭’ 이다영·이재영, 국가대표 박탈

배구협회 결정... 흥국생명도 무기한 출전 정지



이재영



이다영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운영 단계로서 이번 학교폭력 사태로 인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재영과 이다영을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 도쿄올림픽 등 향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논의 결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선수인 둘을 제외할 경우 전력 손실이 크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협회는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시, 철저한 검증 등 올림피아드 정신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가대표팀에 입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선수만을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표에 매년 선발될 정도로 출중한 기량을 갖췄던 쌍둥이 자매는 이번 학교폭력 사건으로 한순간에 추락했다.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은 앞서 이재영·이다영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고, 방송가도 즉각 조치가 나섰다.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이제 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코트에 복귀하더라도 태극마크를 다시 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합뉴스

## 캡틴 김원식 “신·구 조화로 광주 FC 새 역사 창조”

2021 시즌 신임 주장 맡아 이한도·여봉훈 부주장 연임

‘이적생’ 김원식(30)이 주장으로 광주FC의 2021시즌을 이끈다.

광주는 올 시즌 선수단을 이끌 주장으로 김원식을 선임했다. 여봉훈과 이한도는 부주장 역할을 맡는다.

신임 주장이 된 미드필더 김원식은 2021시즌을 앞두고 팀에 합류했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수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또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간의 벽을 허무는 소통 장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라운드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는 팀의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라운드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부주장에 선임된 이한도와 여봉훈은 1994년생 동갑내기로 2017년 광주에 입단해 각각 85경기, 94경기를 소화했다. 강등, 승격, 우승의 현장에 함께 하며 광주의 대표적인 얼굴로 뒀고 있다.

이한도는 지난 2018년에도 부주장으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살림꾼’ 여봉훈은



왼쪽부터 부주장 여봉훈, 주장 김원식, 부주장 이한도.

<광주FC 제공>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주장에 선임됐다.

김원식은 “주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아 영광이다. 주장의 책임감으로 팀을 위해 더 희생하고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감독은 “김원식과 이한도, 여봉훈 모두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뿐 아니라 팀에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생정신이 강하다”며 “올 시즌 선수단과 코치진,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해낼 책임자들이다”고 평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시즌권 사고 사인볼 받으세요

홈 경기 25회 관람...이벤트 풍성

광주FC가 시즌권 판매를 시작했다.

2021 시즌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25회의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올해는 카드형이 아닌 종이형 티켓북으로 제작해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W와 E/N구역(홈 응원석)으로 세분화했으며,

가격은 각각 9만원과 8만원이다. 청소년권은 W구역 6만원, E/N 구역 5만원이다.

광주는 시즌권 구매자 전원에게 2021 사인볼 교환권을 제공한다. 선착순 50명에게는 2021 한정판 티셔츠(2월 중 공개)를 특별 선물로 증정한다.

또 시즌권 구매 당사자에게는 티켓 예매 오픈일 하루 전 선예매를 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홈경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즌권은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한편 광주는 오는 17일부터 ‘2020 시즌권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시즌 관중석이 거의 열리지 않았던 만큼 지난해 시즌권 이월분을 교환해준다.

2020시즌권 구매자는 평일에 구단 사무국을 방문해 시즌권을 바꿀 수 있다. 홈경기 당일 직접 교환도 가능하다. 추후 온라인 교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